

분말탈색제와 산화제를 이용한 헤어색상 변화

강 평 미*

진주국제대학교 미용패션학과

헤어탈색은 다양한 헤어염색을 디자인하기 이전의 전 과정으로서 헤어염색 시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헤어탈색 시 사용되는 과산화수소 농도의 종류를 조사하며, 과산화수소 1%, 3%, 5.5%, 6%, 9%만으로 실험했을 때의 모발 색상변화와 분말탈색제와 과산화수소를 혼합했을 때의 모발색상변화를 알아보고 헤어탈색을 반복적으로 시술하였을 때 모발의 색상변화와 모발 촉감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설문지와 실험연구를 하였다. 설문지의 조사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의 헤어미용실에 근무하고 있는 헤어디자이너와 스태프 85명이었다. 설문지 내용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과산화수소 농도, 분말탈색제와 과산화수소 혼합비율, 자연방치시간과 가온시간, 모발 촉감 등의 총 15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 시기는 2004년 5~6월이었다.

실험연구는 물리적 화학적인 시술을 전혀 하지 않은 만 13세 여중생 모발을 가로 1cm와 세로 15cm시료를 선정하였으며, 분말탈색제와 과산화수소 1%, 3%, 5.5%, 6%, 9%를 1:2 비율로 시약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실험방법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였으며 실험장소는 미용실이다. 시술방법은 시술약제가 화학성분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량컵을 사용하여 분말 탈색제와 과산화수소를 1:2 비율로 혼합하여 도포한 후 가온 10분, 자연방치 5분 동안 방치하였으며, 방치 후 물로 깨끗이 씻어 자연 건조시켰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산화수소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과산화수소 농도가 높을지라도 모발탈색에 의한 색상변화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분말탈색과 과산화수소를 1:2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할 때는 과산화수소농도가 높을수록 모발탈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차, 2차, 3차 연속으로 모발탈색을 할수록 모발색상이 더 밝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과산화수소농도가 높고 여러 번 탈색할수록 모발이 거칠어졌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손상모발, 염색모발, 새치모발 등등의 다양한 모발에 실험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 화학적인 시술을 전혀 하지 않은 만13세의 여중생의 건강한 모발만으로 실험하

* Corresponding author: kpm7311@hanmail.net

였으므로, 이를 여러 번의 염모시술을 받은 고객들에게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모발을 염모 시술 횟수, 모발자체의 강도와 색 등에 따라 분류하여, 이들 각각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현재 시판되고 있는 많은 염모제 중, 서울의 대형 헤어살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특정제품을 사용하였으므로 실험결과를 모든 염모제에 적용시키는 데는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실험 결과물의 색상과 촉감을 측정함에 있어서 색차계와 현미경에 의한 과학적인 분석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용제로 사용한 특정 브랜드의 해당사에서 제공하는 샘플 차트와 실험결과에서 나타난 각각의 색을 비교·분석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없었으며, 이와 같은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헤어미용 실무에서 행하고 있는 헤어컬러 연출이 염모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샘플 차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실험 방법들이 헤어미용 실무에서도 적용되어져 이것이 고객 시술과정에서 활용된다면 헤어 고급 전문가로서의 경쟁력 또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헤어탈색을 실험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모발종류와 다양한 염색제품으로 보다 과학적인 실험을 통하여 모발색상 변화와 모발손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전문가용 염색제품과 비전문가용 염색제품 사이의 색상차이와 모발손상에 대하여 비교 연구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